

‘대선D-2’ 마지막 휴일…광주·전남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

민주당 광주시당, 주말 맞아 종교시설 방문 유세
국민의힘 전남도당, 서해 피살 공무원 친형 동참
민주노동당 광주·전남도당도 곳곳에서 막판호소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지원사격 “내란 종식 총력”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본투표를 이틀 앞 두고 각 정당이 주말 집중유세에 나서 막판 유권자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본투표를 이틀 앞둔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주요 거점에서 유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무등산 일대를 찾아 등산을 가는 산악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종교행사가 열리는 일요일을 감안해 각 지역위원회별로 교회와 절 등 종교 시설을 찾아 투표를 독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오전 나주 농협 앞 남평장을 시작으로 곡성 뚝방마켓, 담양 죽녹원 등지에서 유세활동을 이어간다. 민주당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지역구인 해남 등을 돌면서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우치공원을 시작으로 오후 광산구 어등대로 사거리에서 당협위원장들의 연설을 통한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광양 오일장을 시작으로 보성 울포해수욕장, 담양 죽녹원 일대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유세에는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서해 공무원 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 동구 남광주역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제21대 대선 유세 기간인 지난 22일 광주 시내에서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다.(오른쪽)

살 사건에서 숨진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참여한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문화사거리에서, 전남도당은 같은날 무안 읍장 일대를 돌면서 상인들과 인사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지지를 촉구한다.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유세에 동참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앞에서 열리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유세 현장에 나선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 결과 광주는 52.1%, 전남은 56.5%를 기록, 역대 대선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다.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투표소는 광주 357곳, 전남 806곳에 설치된다.

서선욱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댓글 조작은 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극우 단체가 ‘자순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승가라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은 지울 수가 없다”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웅부공원에서 진행된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실제, 활동 내용,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뉴스타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 역사교육을 하는 우익 단체 ‘리박스쿨’이 자순군이라는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불법 댓글을 달고 돌봄 교사 양성을 받자해서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면서 교육 대신에 댓글을 쓰게 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칭찬하고 이재명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했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다”라고 했다.이어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이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그런 것을 했는지 아무

관련은 없는지를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 한다”라며 “리박스쿨 문제는 그냥 있는 것이 터진 것이다. 그 실체가 없다고 국민의힘이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십일단(십자군 알바단)이라고 있었는데, 댓글 조작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과) 확실하게 연관성이 높다,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영광한 얘기를 끌어들이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이 취해온 전형적인 전략이다.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본질적인 질문,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 후보는 유세에 앞서 오마이TV와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이것은 국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내란”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이어 “엄정하게 수사해봐야 한다”라며 “사람들이 다 댓글에 속아서 주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 등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수권기자

이재명 “영남·호남 분열 정치 맞선 김대중·노무현 길 잇겠다”

“경제적 불평등·정치적 분열 치유하고 국민 하나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분열의 정치에 정면으로 맞섰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잇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하고자 했고, 해내셨다”며 “조유의 IMF

위기에 맞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했고 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적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번번이 낙선하면서도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넘는 ‘통합’의 도전장을 내미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분열을 말끔히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

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그는 “유립과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 보수 색채가 강한 안동, 그 안동이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태를 묻은 저의 고향”이라며 “이재명에게 안동은 전통과 보수의 벽을 넘는 변화와 포용의 씨앗이자,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이준석 “완주 결승선 눈앞…李가 무시 못 할 세력으로 키워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완주의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비아냥, 양당 기득권 세력의 어마어마한 협공을 뚫고 저는 오늘까지 달려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말 상상조차 못 할 압박이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젊은 세

대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꿈, 양당 기득권 구조에 결코 굴하지 않는 작더라도 단단한 정치 진영을 세우겠다는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펼쳐질 세상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방식 그대로”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철저히 짓밟고 젊은 세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질식시키며 1인 천하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 두렵다면 이재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키워달라”고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일정한 지지선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막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올릴 수 있다”며 “이번 선거의 과정을 지켜보시며 국민의힘이 더는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변용일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